

2023 년 11 월 26 일 “(대강절 1 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사 59:1-2; 마 1:20-21)

우리가 대망하는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생각해보겠습니다.

[1] 사람의 근본적 문제

인간은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서 진리를 추구하지만, 욕망과 수치심, 열등감, 두려움에 빠지면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선과 악을 함께 품고 있는 존재로서 이것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더 깊은 문제는 죄와 더불어 죄책감이 따라오는데, 참된 죄책감을 느끼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참된 죄책감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 질서 파괴에 관한 질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폴 투르니, '죄책감과 은혜').

하나님께 의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거룩한 기대와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인간관계의 신성한 질서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은 죄의 근본이며, 이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질책하십니다.

십계명 1 번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참된 삶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외부로부터 끌어온 힘과 자원으로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우상숭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하여 주님은 질책하십니다.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 다윗의 죄와 죄책감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게 한 죄를 범한 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선지자 나단의 지적으로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책감은 잘못된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상 12:9 후-10 '...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시 51 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상상밖의 말을 합니다(시 51:1-4).

(1)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1,3 절)

(2)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에게 지은 죄를 통해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참된 죄책감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새 길로 인도받습니다.

[3]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다윗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맺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구약 제사가 아닌, 진실한 심령으로 고백하여 용서받은 다윗의 복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성취하실 새 시대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성도는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면, 자녀라는 의식이 선명했던 만큼 영적 번민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아버지와 멀어진 근원적 죄를 깨닫고 고백한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습니다.

다윗은 힘들게 이것을 깨달았으나 신약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떠난 죄를 발견하고 아버지와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하늘 유업의 창고를 여는 반전의 열쇠를 얻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주님께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죄가 해결되었나요?
2. 시 51 편을 통해 다윗이 깨달은 죄를 말씀해 봅시다. 다윗은 주님을 무시한 죄가 왜 그리 심각하다고 생각했을까요?